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지원 강화

- 스코프쓰리 배출량 산정,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대응 민관 협력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홍진)은 배터리 업계와 함께 스코프쓰리(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종으로 온실가스 측정대상 및 범위에 따라 스코프(Scope) 1, 2, 3으로 구분

올해 6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기후공시 기준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 산업계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스코프쓰리(Scope3)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법론의 부재, 협력사로부터의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으로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탄소 발자국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최근 통과되면서 배터리 업계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및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함께 7월 27일부터 `스코프쓰리(Scope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발족하고, 각 사의 산정 방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배터리 산업을 위한 '공급망(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연말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터리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치사슬에 속하는 소재(전구체, 바인더, 분리막 등)에 대한 국가 전과정 목록(LCI 데이터베이스)을 추가로 구축하고,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내 배터리 탄소배출량 산정방법도 연내 마련하는 등 기업과 소통하며 유럽연합 배터리법에 대응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을 만들어 가는 데 배터리 업계와 함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인 이차전지가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황순환	(044-201-6693)
<Scope3 산정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	책임자	실 장	김남희	(02-2284-1970)
		담당자	연구원	전나정	(02-2284-1978)



□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구분	개념	예
Scope 1	기업이 소유·통제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량	보일러, 소각로 등
Scope 2	기업이 구매사용한 에너지원 생산 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	전력, 스팀, 냉방 등
Scope 3	기업의 소유·통제 범위 외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	구매한 원자재의 생산·수송, 판매 제품의 사용 등

□ 유럽연합(EU) 배터리법

- (입법경과) EU 집행위 제안(`20.12) → EU의회 통과(`23.6)
- (목적) 배터리 순환경제 촉진 및 배터리 전주기(Life-cycle)에 걸친 환경성 강화
- (적용대상) 전기차·산업용 배터리 등
- (주요내용)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폐배터리 수거 강화 및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배터리 여권제도 도입 등
- (향후일정)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24 ~ `28년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채택 예정